

하루 평균 1.46명 발생, 성접촉에 의해 감염

유엔에이즈기구(UNAID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7,510여만 명 이상으로 3,310여만 명 이상은 사망하고, 현재 4,200여만 명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새로 감염된 사람도 500만 명으로 하루 평균 1만 4천여 명이 감염되고, 지난 한해 사망자도 310만 명이나 된다. 초당 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며, 청소년도 분당 5명꼴로 걸려 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에이즈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이 최대 에이즈 발생지역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감염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예방책없이 방치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아시아가 에이즈 최대 발생지역이 될 것이라고 유엔에이즈기구는 경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398명의 HIV감염자를 확인,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HIV감염자는 모두 2,40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년 들어 하루에 1.46명꼴로 꾸준히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7% 증가한 것이다. 역학조사가 완료된 242명의 97.9%인 237명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이다. 에



이창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무총장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에이즈

이즈 감염자 중 국내 성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인 성 개방 풍조에 의한 이성간의 성 접촉을 통해 많은 감염자 발생이 예상된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필요

일부에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과 함께 예방 백신이나 완치제가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한편에서는 아직도 에이즈를 남의 일로만 여길

뿐만,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인터넷과 같은 빠른 매체를 악용한 청소년 원조교제와 같은 그릇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요즘, 견잡을 수 없이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에이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우선 전파경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예방할 수 있다.

바로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에이즈

에이즈는 감염자의 혈액 수혈, 감염자와의 성 접촉, 그리고 모자 감염과 같은 전파 경로만 차단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수혈의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수혈은 100% 감염된다. 그러나 모든 혈액은 철저한 검사를 거친 후에 사용되므로 안전하다. 다만 의료여건이 열악한 외국 여행 시에는 급하지 않으면 귀국하여 수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자감염(일명 수직감염)은 감염 여성이 임신하면 그 태반을 통하여, 출산과정에서 모체의 혈액에 노출될 때, 출산 후 모유 수유 시에 아기에게 전파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다면 안전할 수 있다.

에이즈는 감염된 사람과 성 접촉을 했다고 해서 다 감염되는 것도 아니며, 어떤 증상이 느껴진다고 감염을 꼭 의심할 필요도 없다.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 - 관심과 배려 필요

에이즈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

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가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본인에게만 알려준다. 검사 결과 양성(걸렸음)으로 진단된 때라도 일상생활로는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므로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즈는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성 행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에이즈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일소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비감염인에게는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감염인과 환자에게는 부담 없는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의 뒷받침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우리 모두의 차별 없는 시선과 관심, 배려가 적극 요청된다. **PPFK**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에이즈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4시간 에이즈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감염인에게는 훈련받은 감염인이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동료상담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5개의 숙박제공 요양센터에서는 정기방문 의료지도와 자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염인들의 심신의 안정과 재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홈페이지 www.aids.or.kr

상담전화 1588-5448(24시간, 전국 시내통화)

음성정보 060-700-6191(24시간, 전국 시내통화)

후원전화 060-700-1160(1회 2,000원)